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나의 모교 찬사연과 '7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



주 대 환_ 서울대 종교학과 73학번,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승리21 마칭지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마산(갑)지구당 위원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현)

1973년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어느날, 나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 생활도 시작되었다. 서울 생활은 자유롭고 새롭고 만족스러웠지만, 대학 생활은 정말로 실망 그 자체였다. 강의 시간은 그토록 지겨워하던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학생들은 오직 고개를 숙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트에 적고 있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왔지만 어떤 훌륭한 집단에 끼었다는 자부심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입학 후 한 달이 지난 어느날 고등학교 선배가 찾아왔다.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가자고 했다. 이름하여 '한국사회연구회', 돌아가신 김병곤 선배와 이진순(전 KDI 원장), 백영서, 이종구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과 김승호, 정태운, 노병직, 박석운, 정은교, 박용훈, 박태주, 김현준, 장기영, 김창우, 정의현 같은 운동기들(지금은 모두 열심히 운동한다고 보기 힘들고,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일하는 사람마저 있지만)을 배출한 한국사회연구회와의 만남은 나의 갈 길을 결정지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상적 방향과 독서, 그리고 '돌섬문화동인회' 활동이 나의 인생에 크고 막연한 목표를 주었다면, 대학 1학년 한국사회연

구회 가입은 나의 인생이 가야할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좁은 외나무다리 같은 길을 마련 해주었던 것이다.

그 시절에 우리는 비밀이 많았다.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싶었던 그 동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 내가 7기라고 하니 나보다 여섯 해 선배, 즉, 67학번 선배로부터 시작된 줄만 알고 있었다. 이미 발간했던 학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가입했을 때 한국사회연구회는 거의 지하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묻지마'라는 분위기였다. 찬사연에는 진취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책임감과 긍지가 대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문화연구회, 국제경제학회, 농촌법학회, 이론경제학회 등 다른 학회들이 전통적으로 단과대학 한 두 개에 기반하고 있던 반면에 한국사회연구회는 문리대, 상대, 법대, 사범대에 걸쳐 골고루 많은 회원을 모집하여 후배를 공부시키고 조직하였다. 40명도 넘는 1학년 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니 두 팀, 세 팀으로 세미나를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여 '죄파'가 되어갔다. 요컨대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연구회를 졸업했다.

2학년 초의 어느날 일어 공부를 한다고 모여 있는데, 친구 하나가 매우 피곤한 얼굴로 와서는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도봉산 쪽의 방학동 어딘가로 가보니 민청학련 선언문과 김지하나 장기표가 지은 '민중의 소리'니 하는 제목의 글들을 등사용지에 타자로 쳐서 등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철이니 유인태니 하는 선배들이 드나들면서 찍어놓은 유인물들을 가지고 나갔다. 하루는 눈에 핏발이 선 김병곤 선배가 와서는 나와 동료들을 보고서 2학년들을 동원했다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 "다 깨지려고 하느냐"고 꾸짖었다. 일을 마치고 4월 3일 새벽에 그 집을 나오면서 김병곤 선배가 우리들에게 물었다. "오늘 만약 경찰에 잡혀 고문을 받으면서 민청학련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답할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잠히더라도 반드시 하루는 버텨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나는 '모른다'를 되내이면서 남가좌동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비누로 등사 잉크가 잔뜩 묻은 손을 씻고 한숨 자고서는 오후 늦게서야 동승동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마산에서 먼 친척집에 숨어서 두어 달 잘 놀다보니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슬금슬금 내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 동대문경찰서로 옮겨졌는데 유치장에는 이미 석 달 전에 잡혀 들어온 선배 동료들이 수십 명 있었다. 그들 중에는 사회학과 3학년이었던 이해찬이나 국사학과 3학년이었던 정동영, 서양사학과 3학년이었던 백영서, 동양사학과 2학년이었던 박용훈도 있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고 열흘쯤 있다가 석방됐다. 그리고 나는 10월에 입대를 하였다. 그 다음해 1월에 내가 한참 줄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민청학련 관련자는 재판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 김지하, 이철, 유인태, 김병곤 등에게 공연히 사형 선고를 하였다가 다 석방한 것이다. 그 재판에서 김병곤 선배는 “영광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1977년 7월 17일, 제대한 날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제대를 하고 돌아오니 나의 동기들은 이미 졸업을 해버리고 나는 3년 후배들, 76학번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당시 4학년이었던 74학번 국사학과 김경택과 농업경제학과 장기영, 이런 사람들이 10개 정도 되는 지하 이념 서클의 76학번들 중에서 한 사람씩 모아서 의논하는 비밀 모임을 만들고서 거기에 나를 끼워 주었다. 나는 물론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나 단지 군대를 갔다온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후배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왕 학생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행운일 수도 있었으며 세상을 좀 편히 살자는 입장에서 본다면 큰 불행이었다. 모든 정보가 여기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도 커서 다른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1977년 가을부터 1978년 가을에 내가 잡혀 들어갈 때까지 1년 간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긴장된 한 해였고 젊을 때인데도 어떤 성적 욕구와 관련하여 해석할 만한 꿈을 한번도 꾸지 못했다. 나는 그 당시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부정하였노라고, 아니 프로이트 심리학의 한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치기였지만 그 당시에는 매사에 그런 식으로, 프로이트나 도스토예프스키나 짜르트르나 그런 사람들과 대결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비밀 모임이 중심이 되어 학내의 지하 조직들을 정확하게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모를 주동할 사람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유인물 수백 장을 들고 나타나기만 하면 되었다. 심지어 유인물을 등사할 비용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주로 내 몫이었는데 졸업한 선배들

을 찾아가 돈을 얻어와서 주동팀에 주고는 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사이의 엄청난 신뢰와 사랑, 동지애였다. 사실 데모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탄압 자체에 있었다. 사랑하는 선배나 동료를 형사들이 잡아가면 후배나 동료들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형사들과 싸우면서 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는 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잡아간 적을 증오하다가는 마침내 감옥가기를 결심하였다. 지금도 내 눈에 선한 장면은 주동황(광운대 언론학과 교수)이 누군가를, 아마도 서동만(북한 연구자)으로 기억되는데, 잡아가는 형사들을 향해 노란 잠바를 휘날리며 2단옆차기로 덤벼들던 모습이다. 평소에 얌전한 이필렬(방송통신대 교수, 환경운동가)도 시위가 일어나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나는 당시에 데모가 벌어지면 미리 전망이 좋은 높은 곳에 올라가 우리 작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면 77년과 78년 내가 사귄 1백 명에 가까운 후배들, 나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의 존재에 가장 큰 근거가 되어준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학자가 아니면 기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학자가 될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는 그들을 투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나 파벌 싸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개인들끼리도 어떤 경쟁심 같은 것도 없었으며, 집단적으로도 어떤 헤게모니 다툼 같은 것도 없었다. 하기는 감옥을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자기의 청춘을 맡기는 일이나 다투어 할 리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성 이면에 있어서, 성악설(性惡說)의 근거가 되는 권력욕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하서클들은 서로 역사도 다르고 선배들도 달랐지만 완전히 하나의 동질감과 단결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런 단결의 중심에 ‘비밀 모임’이 있었다. 그러한 경험은 나의 인간관을 지나치게 성선설(性善說) 쪽으로 기울게 했으며 ‘공산주의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믿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조직력은 예를 들면 동일방직 사건 같은 데서도 발휘되었다.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경찰의 비호를 받는 어용 조직이 풍물을 뒤집어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학생들도 대단히 흥분하여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로 결의하였다. 투쟁은 장기화되고,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2학년 이상 지하서클 회원들이 두당 1만원씩(아

마도 지금의 10만 원보다는 많은 돈일 거다)을 내어 2백만 원 가까운 돈을 당시에 동일방직 노동조합과 연결을 맡고 있던 정태운 선배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미행을 우려하여 서울 시내 변두리 길가에서 만나 중국집 같은 데로 들어가 회의를 했는데, 약속은 플러스마이너스 30초에 지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것은 수학적 엄밀성과 정확성을 좋아하는 내 체질에 꼭 맞았으며 약속에 관한 나의 오랜 습관이 이때 굳어졌다. 절대로 일찍 가지도 않는다. 물론 지금은 그런 비대중적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여 성공한지 오래 되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나중에 77학번, 78학번, 79학번까지도 이어져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사령탑 역할을 하였는데, 77학번 모임에 들어간 선배는 사범대 국어교육과 76학번 이원주였다. 그는 말하자면 내가 맡았던 역할을 이어받았는데 특히 체구가 작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당시의 그 사람만큼 흔들림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바위덩어리처럼 흔들림이 없으니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을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1979년, 76학번들인 김창호, 김용호, 김준희, 김용흥, 주동환, 곽병찬 등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데모를 주동하고 모두 감옥으로 갔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갑작스런 박정희의 죽음으로 닥친 그 혼란스런 정국을 침착하게 준비하고 후배 77학번 심재철을 학생회장으로 내세워 엄청난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무림'이었으니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였으며, 그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80년 여름에 급조된 '학림'과는 역사적 품격과 위상을 달리하는 바 있다. 무림이라는 이름은 1980년 가을에 77학번 최영선, 김명인, 현무환 등이 일으킨 불발 데모를 단초로 배후 조직을 수사하다가 족보를 캐면 껌수룩 방대하고 윤곽을 잡을 수 없고 오리무중이라 해서 수사팀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1976년 초 겨울 졸업을 앞두고 법대의 73학번 박석운과 백계문, 이범영이 데모를 하고서는 잡혀 들어가 있었다. 그들이 주동한 데모가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재판을 받는 공판정은 매우 훌륭했고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나는 영등포 지방법원이나 서울 고등법원에 후배들 1, 2백 명과 함께 다니곤 했는데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려던 3명(특히 그 중에서 박석운은 법대를 2등으로 졸업할 예정이었으며 일본 신문에서는 그것을 과장하여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예정자라고 보도하였다는 설이 있다)과 검사, 또는 판사, 변호사들이 같이 벌이는 유신 헌법의 정당성이나 긴급조치9호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쟁은 불

만한 구경거리였고, 거기서 후배들은 쉽게 감동을 하고 잘도 선동이 되었다. 그렇게 3, 4백 명의 지하서클 조직원들이 선동이 잔뜩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해 가을에 또 74학번의 김정택, 장기영, 75학번의 연성만 등이 데모를 주동하여 매우 큰 학내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에는 긴급조치9호를 근거로 전경 차량이 여러 대 학교 교정 뒷편 후미진 곳에 대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복 형사들 1, 2백 명이 캠퍼스의 중심부, 도서관 앞, 학생 회관 앞에 죽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데모 주동자가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9호를 해제하라!"고 소리치며 유인물을 뿌리고 앞으로 나서면 5분도 되지 않아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형사들에게 붙들려 어디론가 끌려 가버리는 그런 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하서클 조직을 최대한 동원하여 주동자를 보호하고 형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일반 학생들이 모여들어 수천명이 되면 이제 시위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다음에는 전투 경찰이 출동하여 캠퍼스 안을 온통 전쟁터로 만들고 강의실을 최루탄 가스로 채우며 시위대를 흩어놓음으로써 그날의 시위는 끝나게 되고, 그 날 저녁 학교 앞 막걸리집은 온통 학생들로,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었다.

데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안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학생들의 호응 정도였다. 그러므로 시위를 너무 자주 벌여서 식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학기초에 너무 일찍 데모를 일으켜 공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을 거슬러서도 안 된다. 적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간 고사는 치른 후라야 학생들의 호응은 좋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치른 후라면 설사 시위로 인하여 휴교를 하더라도 두어 달 재미없는 강의에 지친 학생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내심 기다리고 있던 교수도 리포트 숙제를 내주어 나중에 다시 개교를 하면 한두어 번 강의를 하고서는 한 학기를 적당히 마무리지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학생들의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데모의 적기(適期)를 잡고는 했으며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는 한 우리는 매번 성공하고는 했다.

1976년 말이나 1977년 봄의,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시위에 이어 1977년 가을에는 데모가 크게 성공을 해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학생 대중의 지지에 대해 확신을 갖고 1978년부터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건물의 난간에 서서 주동자가 외치는 방식, 심지어 밧줄을 타고 고공에 매달려 외치는 방식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다. 처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주동을 한 것은 내 기억으로는 동양시학과 75학번 이우재, 중문학과 75학번 김수천, 국문학과 75학번 성욱 등 5인조가 주동을 한 1978년 봄의 데모였다. 성욱이 유리창을 깨고 3층 난간 위에 올라가 외칠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중앙정보부 서울대학교 책(責)이었던 김만복이란 자가 저도 난간 위로 나아가 “너만 애국자냐?”라고 소리 치며 악을 썼다는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다. 성욱이는 몽둥이를 휘둘러 김만복이나 다른 형사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서 한참을 그렇게 외치다가는 땅바닥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가서는 땅으로 뛰어내려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영웅이 되었다. 학생 대중의 호응은 크고 주동자가 나타나는 장소는 뜻밖의 곳이니 형사들은 우왕좌왕하여 5명의 주동자 중에 2명인가밖에 잡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 학교 안에서지만 데모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무엇보다도 학생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시위 투쟁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황광우 동지(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활동가가 될 줄 몰랐던 열혈 청년)를 비롯한 몇 사람으로 하여금 수만 장의 반정부 유인물을 만들어 시내 곳곳에 뿌리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그때까지만 해도 공릉동에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등 다른 학교들과 공동으로 연합 시위를 시내 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할 계획을 꾸미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의는 거사 이틀을 남겨두고 정보기관에 누설되어 모두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새벽에 여동생과 같이 자던 자취방에 들이닥친 형사들 4명에 의해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침착을 가장하기 위해 칫솔을 챙기고 여동생을 안심시킨 후(나의 여동생은 안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충격으로 후에도 나의 활동을 마음 속 깊이 혐오하게 되었다), 그들을 따라 나섰다. 관악경찰서에서 나는 오직 학내 ‘비밀 모임’을 보호하고 나의 출신 서클인 한국사회연구회를 숨기는 데 열중하였다. 마침 카터가 한국의 인권 문제에 간섭을 하면서 미국 CIA가 한국 중앙정보부에 감시자를 파견하고 있을 때라 나는 심한 고문을 받지 않았고, 보호해야 할 조직을 지킬 수 있었다. 당시 공범이 고려대 정경연과 성균관대 장준영 등이다. 그리고 김부섭(서울공대 74학번)은 당시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남민전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감옥에 들어가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취했던 모든 행동과 자세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물론 심문을 받으면서 내가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준 것도 없고 동지와 조직을 배신한 것도 없었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속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졸았는지. 그 이전 1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항상 적극적인 투쟁을 주장하면서 자타가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공인 하던 터였기에 힘 앞에서 위축되는 나를 깨닫고는 너무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한 죽고 싶은 마음을 잊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루카치의 영문판 <역사와 계급의식>을 먼저 읽었다. 그리고 스위지의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프랑크, 아민, 돌, 파농의 책들을 계속해서 영문판으로 읽었다. 그렇게 책에 매달려 몇 달 지내면서 서서히 그토록 참을 수 없었던 수치심, 죽고 싶은 마음을 잊을 수 있었다. 아니 그 지독한 부끄러움을 달래어 김수영의 ‘모래야 먼지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라는 보편적 부끄러움으로 위로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비겁’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특별하다. 김수영이 그랬듯이 나는 나의 ‘비겁’을 인정한다. 비겁은 나의 존재, 부모를 속이고 친구에게 구걸해 살아온 나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나는 1979년 여름에 출소하여 고향인 마산에 내려가 있던 중 부마항쟁을 겪게 된다. 10월 18일 오후 6시 30분쯤, 시내에 난리가 났다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시내로 나갔다. 창동 네 거리 마산의 중심가에 이미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어두워질 무렵, 7시쯤 2백 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정희 물러가라’고 간간이 소리치고 애국가도 부르면서 수출자유지역 방향으로 2킬로미터쯤 행진을 했다. 공화당 사 앞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지만 이미 1만 명쯤 되는 군중에게 경찰 1, 2백명은 두려워 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 후부터 시위 군중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오동동 파출소, 산호동 파출소, 북마산 파출소, 남성동 파출소 등을 닥치는 대로 두드려 부수고 불을 질렀다. 그때의 시위대를 이끈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괴성을 지르고 파출소 유리창을 다 두드려 부수고 불을 질러버리는 사람들은 깡패들이었으며, 10대의 인쇄소와 철공소와 자동차 정비공장의 견습공들이었으며, 구두담이, 술집 웨이터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부마항쟁의 그 날에 우연히 마산시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1,000명, 마산에서 500명이 잡혀 들어갔다. 대부분은 1주일에서부터 4주일까지 구류를 살렸지만 부산, 마산 각각 50여 명씩 군법회의 재판에 넘겼는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인

연이 되어 마산의 경남대학교 학생운동, 마산 지역의 여러 진보적인 사람들과도 동지적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초반, 전두환이 집권하여 다시 모두들 제적당하고 학교로부터 쫓겨났을 때, 이미 전과가 누적되어 대기업 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얻기도 힘든 나는 1981년 초부터 1985년 말까지 5년 간을 마산, 창원, 부산 일대에 살면서 마산의 동지들과 더불어 <마산문화>라는 잡지도 내고, 사회주의적 학습도 하고, 소그룹도 조직하면서, 아니 여러 가지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나와 비슷한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드문 선택이었고, '운동권 바깥에서 대중과 더불어 살면서 무언가를 모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내 나름의 독특한 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1986년 초 서울로 보따리를 싸들고 왔을 때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후 나는 '운동권'의 상투적 언어와 사고에 물들어 있던 나의 학생운동 시절을 반성하고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나서게 된다.

내 인생의 필연적 선택과 서울대 최장기 수배생활



권형택_ 서울대 국사학과 74학번,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부의장, 민주정취국 민운동본부(국본) 청년 학생위원장, 민통련 사무차장,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무 총장(현), 민청련동지회 회장(현)

74학번으로 서울대 문리대에 입학해 공릉동에서 교양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되면서 국사학과로 진학을 했다. 당시 문리대는 사회대에 비해 감성적으로 분방한 편이었다. 법대와 상대가 이론학습에 주력했던 반면 문리대는 이론학습을 통한 조직적 전통이 강하지 않았고 감성적 투쟁이 앞서는 분위기였다. 나는 1학년 때부터 농촌법학회에 가입해 서클 선배들을 보면서 1학년 말부터 시위에 가담하였는데 이때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텄던 것 같다. 입학할 때 민청학련 사건을 보면서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였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인혁당 8명 사형과 김상진 할복자살 건 등으로 학내시위가 격렬해졌다. 그래도 5월 13일 긴급조치9호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삼엄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소위 생사를 건 싸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5.13 이후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긴조9호는 우선 조문 자체가 오싹했다.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 여론을 완전히 봉합해 버린 긴조9호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한 것은 오들들 시위 때이다.